

# 정의와 공의를 선포한 전도자 아모스

## -복음으로 여는 아모스-

아모스 5:24, 마태복음 23:25

정윤돈 목사님

- \* **암5:24**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이다
- \* **마23: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성취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보좌로부터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도전해야 할 오히려 더 가치있는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부를 잘하고 1등을 하는 것보다 내가 그 현장에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열심히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하면서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포기하면 안 된다. 영적인 것, 경제적인 것, 공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다. 개인의 발전과 역사의 발전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절대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수천 년 전 아모스서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우다가 지금의 인권, 자본주의가 되었다. 1688년에는 명예혁명이 있었다. 제임스 2세라는 영국의 왕 때 생긴 게 입헌군주제다. 왕권을 줄이고 의회를 통해 법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당시는 종교개혁 이후였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입헌군주제를 만들었다. 이걸 보고 몽테스키외가 발전시킨 게 삼권분립이다. 법을 지키고 잘못을 벌하고 선한 사람을 지켜주는 게 세상적인 정의다. 물론 민주주의 제도에도 장, 단점이 있다. 표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내놓고 소수의 목소리를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되면 내각제가 주목을 받는다. 제도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다.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의를 향해 가고 있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다.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는 히브리어로 각각 ‘미쉬파트’와 ‘체다카’이다. ‘미쉬파트’는 법적인 올바름과 상벌, 공정한 판결이나 판단을 의미하고, ‘체다카’는 올바른 행동, 즉 공의로움을 뜻한다. 특히 ‘공의로움’을 뜻하는 단어 ‘체다카’는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의미 이상이다. 정의와 공의를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체다카’는 정의와 자비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즉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포함한다. 법적인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공의는 그걸 발전시키고 승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것이 ‘체다카’이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행동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의로움은 올바름을 넘어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믿음의 양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제 하나님의 공의와 당연한 믿음의 행위이다. 법만 잘 지키면서 남을 사랑하거나 돕거나 희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게 공의는 아니다. 직장에서든 마찬가지다. 법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복음은 아닌 경우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받은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시대에 아모스를 불러 선지자로 부르시며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다. 결국 완전한 ‘체다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외적

인 율법 준수만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며, 마음과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정의와 공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게 예수 사랑이다. 아가페다. 아모스서는 이 사랑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정말 사랑을 입었다면 거둬낼 수밖에 없다. 당장 영적문제가 해결되고 주변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것들이 당장 변하지는 않지만 내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나는 사랑해야지, 양보해야지, 내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지, 전도와 선교여야지’ 할 때 하나님은 다 더해 주신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를 내 삶과 영혼의 중심, 주인, 왕으로 영접할 때 되어진다. 우리를 위해 희생해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피, 땀, 눈물을 흘려주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 한 입에서 단 물과 쓴 물이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과 인생은 사적연산 하듯이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복잡한 세상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금방 답이 나온다. 요엘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매우 꾸짖으신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그 길을 가고 고통을 당한다. 조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결국 또 잘못한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드신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그 고백이 필요하다. 그제 방향이다. ‘죄’는 과녁, 방향을 벗어났다는 뜻이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복음, 선교, 진도중심으로 살겠다는 방향을 가지면 그제 바로 구원이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축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은 구약성경 중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아모스서의 저자는 예언자 아모스이며, 이름은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이다. 아모스는 남유다 농사꾼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하는 미션을 받는다. 내 일을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이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더해 주신다. 십자가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현상이 지옥이 된다.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은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선지자 아모스는 드고아에서 목자로 일하며 뽕나무를 재배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활동을 하였다. 한글성경에서 ‘뽕나무’로 번역된 나무는 사실 ‘쉐킴마’, ‘돌무화과나무’다. 돌무화과나무 열매는 맛있지 않다. 좋은 열매는 부자가 따먹었고, 돌무화과는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었다. 아모스는 가난한 사람에게 돌무화과를 주고 헌신했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 1. 아모스서의 1장부터 9장까지 핵심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1) 1장과 2장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주변 나라들(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함과 동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지금 우리 주변도 그렇다. 여기에 선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응답받고 산업에도 축복받아야 한다. 대단한 걸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살리겠다는 중심을 가져야 한다. 온 세상이 전쟁과 재앙과 영적 문제와 마약에 들끓기 때문에 길이 없다. 인간이 만든 제도들은 답이 아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하는데 기술이 인간에게 유익하기만 하지는 않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벽해진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이 연약을 붙잡을 때 내가 있는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 (2)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꾸짖람과 경고를 계속한다. 율법에서 벗어나면 재앙과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다.
- (3) 4장에서는 사치와 방종 속에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통한 회개를 촉구한다.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과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서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자들을 존경하지 않는데 미국은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자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든 사람이 구제하고 돕는 게 생활화 되어있다. 복음적인 부분이다. 복음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
- (4)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와 정의, 공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신다고 강조한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이다”라는 구절은 아모스서의 중심메시지로,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 중요한 가치임을 말씀하고 있다.
- (5) 6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부유층의 교만과 사치가 지적되며, 그 결과로 다가올 심판을 예고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약자를 억압하고 있었다. 그런 시대적인 문제와 상황은 계속해서 오늘까지 반복되어왔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 (6) 7장은 아모스의 첫 번째 환상으로 메뚜기, 불, 다림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다. 여기서 ‘다림줄’은 건물을 바르게 짓기 위한 도구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재앙이 임한다. 다림줄 환상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술라이어마허는 '절대의존의 감정'을 이야기했다. 르네상스 이후 칸트를 비롯해 경험주의적인 사고 경향이 있어 모든 것을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려고 하다보니 신이 필요 없어지고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술라이어마허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다. 그런데 칸트도 틀리고 술라이어마허도 틀렸다. 절대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다. 우리 이성의 기준은 복음이다. 하나님이 기준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준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헤겔은 '절대정신'을 이야기했다. 모든 우주의 원리가 어떤 정신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절대정신과 하나님의 차이는 '절대정신은 인격이 없는 시스템, 원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만든 분이 있다.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처럼 세상학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초동학문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고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인간과 차별적이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7) 8장에서는 마지막 수확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며, 이스라엘의 영적 빈곤과 타락을 강조한다. 수확은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다. 마지막 날에는 진짜 응답 받고 상을 받는 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날도 온다. 여러분에게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다. 방향을 바꾸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다. 목사님도 마찬가지다. '나를 전하면 여기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 메신저와 메시지의 잘못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브라함과 모세도 다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신다. 그들이 그랬지만 너희는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다.

(8) 마지막 장인 9장에 보면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로 끝맺는다. 심판 후의 회복을 약속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소망을 전한다.

## 2. 아모스에 담긴 복음의 요절을 알아보고 복음과 정의에 대하여 신학적인 관점으로 설명드리고자 한다.

(1) 첫째로 아모스에 담긴 복음과 그리스도이다. 아모스서는 주로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지만 그 안에는 복음적 의미와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다. ① 아모스 5장 24절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단지 제사나 외적 의식보다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종교생활을 비판하시며 참된 내면의 거듭남과 이웃사랑을 요구하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공휴와 사랑과 용서와 헌신이 없는 메마른 상태였다. 정의는 지켰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메마르게 살아갈 때가 많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부합하며, 진정한 의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실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② 아모스 9장 11절에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와 같이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다.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축복도 상징한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후대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회복시킬 것임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그 시간표를 앞당기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분을 통하여 완성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이 구절은 메시아적 예언으로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예표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8백 년 전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헌신과 에덴과 영생과 정의와 자유와 발전도 있다. ③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이는 복음에서 나타나는 영적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회복을 예표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땅대로 세우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로 심으실 것이다. 계속 성령의 열매, 경계의 열매 맺는 후대가 되셔야 한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 내 문제 안에서 겨우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란다. 그게 공의로운 삶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란다. 방향을 바꾸면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한다.

(2) 두 번째에서는 신학적으로 해석한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신학이라는 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의미이다. 아모스서에서 강조하는 "공의"와 "정의"가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이다. 겉으로 보기에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적이고 정

죄의 메시지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공의와 정의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볼 수 있다. ① 정의와 공의의 본질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단순히 사람을 처벌하거나 판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올바르게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성품에서 비롯되며, 그분의 뜻에 반하는 악과 불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포함한다. 자연과학에서는 우주만물이 미세조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자연과학 안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있다. 인문학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질서를 지켜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활용하는 게 공의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형벌적인 정의와 다르게 사랑과 회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부모님과 같다. 세상 법이 정죄하기 위함이라면 부모님의 꾸지람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② 율법과 복음의 관계이다. 구약에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지침이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경고하지만 최종목표는 회개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문학 선생"으로 표현하며,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③ 공의와 사랑의 만남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완벽히 조화된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에게 대신 집행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다. 이로써 공의는 이루어졌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정의를 가지고 계시다. 인간은 죄의 대가를 치루지 못한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다. ④ 회개와 복음의 상관관계이다. 아모스서의 핵심메시지 중 하나는 참된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이다. 내가 영적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회개는 벗어난 방향에서 돌아선다는 뜻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신약의 복음메시지와 일치한다. 예수님께서도 외적인 종교적 행위보다는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강조하셨다.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첫 걸음이다. ⑤ 복음적 결론이다. 아모스서의 공의와 정의의 메시지는 죄와 불의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키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정죄가 아닌 참된 회개를 통한 회복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다. 아모스서에서 외치는 정의와 공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복음의 모형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모두 충족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결국 아모스서에서 강조되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복음의 기초가 되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증거하는 아모스와 같은 전도제자가 되시기 바란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이정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로마이다.

① 갈보리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다. ②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후에는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우리는 전도, 선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까지도 포함된다. ③ 마가다락방에는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다 옛 체질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④ 그래서 안디옥교회에서 새로 시작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분들은 목숨 건 오직 예수였지만 옛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이 약했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교회를 쓰셨다. ⑤ 안디옥교회에서 파송했지만 세계복음회의 모델은 에베소교회였다. ⑥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새로운 현장에서 계속 갱신하면서 전도가 확산되었다. ⑦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도 계속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골로소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세워가는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중심, 말씀중심, 전도, 선교중심이 되어 모든 현장에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